

중국의 창업 ‘굴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김영생 연구위원 yk281@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국 청년들, 창업 아이돌 스타를 꿈꾸다

ICT를 비롯한 첨단제품 시장에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의 한 창업기업들은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예컨대 샤오미, 텐센트, ZTE 등의 기술기업들은 현재 중국의 혁신산업을 선도하면서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0년에 창업한 샤오미는 2년 만에 휴대폰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더니 그로부터 3년 뒤에는 한국 대기업과 어깨를 견주는 위치에 올라섰고, 화웨이는 인터넷 장치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와 화웨이는 한국 제품의 품질과 비교할 만하고, 다양함과 저렴한 가격(50~70%)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으로써 중국 내수시장을 비롯한 개도국의 저가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 중심의 새로운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과 선두 경쟁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매일 1만 개씩 탄생하는 창업기업과 이를 둘러싼 창업 생태계가 있었다.

중국의 창업 붐과 급격한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첫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혁신을 목표로 창업에 몰두하는 창업사회 활성화이다. 북경시 소재 대학 졸업자의 80%가 창업을 가장 먼저 고려할 정도로(중관춘

관계자 면담, 2015. 9. 16) 창업은 대학생의 대표적인 사회 진출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알리바바의 마윈, 샤오미의 레이쥔과 같은 창업계의 스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TV와 언론에서도 이러한 창업계의 스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고, 중요한 국제회의 등에서 주요한 인물로 부각시킨 덕택에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들에게 이들은 ‘아이돌 스타’와 같은 선망의 대상이다.

두 번째 원동력은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탄탄한 인프라이다. 중국 정부는 북경의 중관촌을 중심으로 한 창업거리(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창업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촌은 서울시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88km²에 1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만 개 회사가 입주하였으며, 40개 대학의 캠퍼스와 200개의 연구소, 각종 산학연 협력센터 등에서 180만 명이 일하고 있다. 중국의 창업투자자금의 약 50%가 중관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2만 개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3,500억 달러(396조 원)를 돌파하였다. 이곳에서는 인터넷, 인공위성, 신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등 11개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소로 등록이 한정되며, 각 산업별로 29개의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테크파크가 활동 중이다. Google, Microsoft, SAS 등 외국회사 및 관련 연구소가 263개, 국제 마케팅 관련 기관이 40개가 입주하였으며, 외국인 2만 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중관촌 담당자 인터뷰, 2015. 9. 16)

중관촌 창업 클러스터의 작동 구조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 창업 인프라

중관촌은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와 창업지원기관, 인큐베이션 센터, 협력 대학과 리서치 센터, 국내외 우수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창업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이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New Entrepreneur Organization, New Innovation organization 등 10여 개의 창업 지원기관에서 자금·회계·인력 확보 및 관리·시제품 생산·법률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중관촌에는 아이디어 개발, 창업팀 구성, 창업 경험자의 코칭 등을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약 100여 개의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 인큐베이션 센터가 30개, 주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대학과기

원(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parks)이 14개, 혁신 인큐베이터가 17개로, 창업회사는 이 가운데에서 한 센터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인큐베이션 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 국가과학기술인큐베이션 센터와 국가대학과기원에서 인큐베이션 중인 기업만 총 3,520개, 이 두 기관의 인큐베이션 과정을 마친 기업은 4,859개에 이른다.¹

중관촌에는 2013년 기준 206개의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그 중 국가핵심연구소는 112개, 국가공학연구센터는 27개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도 중관촌은 매력적인 혁신기술창업지구로, 2014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98개 기업이 이곳에 진출해 있다.²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관촌에는 Google, Microsoft, SAS 등 외국회사와 연구소가 263개, 국제 마케팅 관련 기관 40개에 외국인 2만 4,0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관촌은 북경대학, 칭화대학 등 40여 개의 대학과 26개의 대학과기원, 34개의 유학생창업단지(留学人员创业园)와 협력하고 있다. 이렇듯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엔지니어, 기술자, 연구 인력을 중관촌에 공급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협력 대학은 중관촌의 인재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중관촌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시제품 생산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중관촌은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중국 경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산업별로 29개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기술파크를 통해 산학협력을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중관촌의 핵심 지원사업은 북경시의 1+6 정책

‘1+6 정책’은 2010년부터 중관촌 창업기업에 도입된 중국의 대표적인 창업활성화 정책이다. ‘1+6정책’의 1은 하나의 중관촌 혁신 플랫폼 건설을 의미하며, 6은 중관촌 혁신 플랫폼 건설을 위한 6가지 시범정책을 뜻한다. 2014년 말 CPC 중앙

표1 중관촌에 지사 또는 연구소를 설치한 글로벌 기업

기업 국적	기업 수	기업명
중국	46	Lenovo, China Railway Group Limited, BAIC Motor 등
미국	20	HP, Google, IBM, Intel, cisco, Oracle 등
일본	9	HITACHI, Panasonic, Sony, Canon 등
독일	6	Daimler AG, SIEMENS AG, BMW, Bayer 등

자료 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Zhongguancun Innovation Development Institute, & Beijing Fangdi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2015, Zhongguancun Index 2014

¹ 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Zhongguancun Innovation Development Institute, & Beijing Fangdi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2015

² 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Zhongguancun Innovation Development Institute, & Beijing Fangdi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2015

위원회와 주위원회에서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을 만큼 이 정책은 중관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먼저 중관촌 국가혁신시범구역의 첨단기술기업은 국가 수준, 북경시 수준, 중관촌 수준으로 기술평가에 따른 등급이 지정된다. 가장 우수한 국가 수준의 기술로 평가받은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 시범정책이 이어진다.

첫 번째 시범정책은 기술 처분권 및 과학기술 성과 수익권 개혁시범정책(科技成果处置权和收益权改革试点政策)이다. 이는 지원을 위한 승인과정 단순화로 혁신적인 기술성과의 분배방식에 관한 승인과정을 단순화하고, 정부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와 창업기업(기술 개발자) 간의 수익금 분배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투자하고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처분했을 때 그 수익금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기업과 분배하는 식으로 개편되어 과거보다 기업에게 유리해졌다. 정부로부터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지원받는 창업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의 제품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수익은 개발자(창업기업)가 75%, 정부는 25%로 분배한다. 작은 규모의 창업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기술가치가 8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정부 지분이 따르지 않으며, 개발자가 바로 기술거래시장에 팔 수 있도록 개인이 기술 수익권을 지닌다. 이러한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수익 처분 관련 정책은 '1+6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는 창업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税收优惠试点政策)이다. 합자벤처캐피탈회사의 기업 파트너는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술이전 수익(5년 이상의 비배타적 사용권 이전 포함)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면제되며,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기술을 보유한 회사에게는 법인세 15%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뿐 아니라 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세금 혜택도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주식을 통한 창업자(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股权激励试点政策)으로, 창업 관련기관에 기여한 바가 큰 과학기술 인력이나 관리 인력에 인센티브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식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기술성과에 대한 지분 분할이나 지분 교환, 주식 판매, 증권 매각, 스톡옵션, 배당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연구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높인 정책(科研项目经费分配管理体制)이다. 북경시 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체를 만들고, 연구자금을 활용하여 연구

간접비 보상, 단계적 연구비 지급, 연구기관 및 고급 인력의 연구자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첨단기술 창업기업을 위한 기업등록, 지적재산권 등록 등 절차를 혁신한 정책(高新技术企业认定试点政策)이다. 과거 기술기업으로 등록에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이 정책으로 중관촌의 국가혁신시범구역에 등록된 6개월~1년 미만 기업도 최첨단 기술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핵심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범위를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장외증권시장 국가통합 관리정책(建设统一管理下得全国场外交易市场试点政策)이다. 중관촌의 비상장 벤처기업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2006년 국가 통합 장외증권시장(OTC)인 ‘신삼판(新三板)’을 설립하였다. 이 신삼판(新三板)³을 통해 2015년 6~9월까지 4개월 동안 기업이 조달한 투자금은 약 525억 위안(83억 달러),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은 3,721개에 이를 만큼 신삼판(新三板)은 창업기업의 든든한 자금조달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헤럴드경제, 2015. 10. 20)

중관촌의 경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거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시세를 나타내는 베이징의 30평 규모 아파트는 90만 위안(16억원)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에게 주거 문제는 가장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를 위해 중관촌은 창업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 북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류증⁴을 특별히 제공한다. 또한 평균 임대료의 20~30% 수준으로 낮추는 주거 지원과 의료보험 등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젊은 인재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듯 수많은 청년들이 중관촌에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관촌 입주 기업의 임직원 평균 나이가 33세이고 46.5%가 30세 미만이다. 또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94만 9,0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50% 이상이 석사학위 소지자(18만 3,000명)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1만 8,000명)이며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청년도 1만 9,000명에 이를 만큼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⁵

중관촌과학기술관리위원회는 중관촌의 성장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와 역량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관촌은 우수인력 확보와 중국인력 양성을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바이오벨트, 이스라엘의 창업 클러스터 등에 해외 지부를 운영 중이며, 향후 해외 지부를 늘려갈 계획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

‘중소기업분양도시스템(NEEQ: National Equities Exchange and Quotations)’이라고도 불림

4

북경시 거류증은 중국인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됨

5

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Zhongguancun Innovation Development Institute, & Beijing Fangdi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2015

중국의 창업 정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2015년 1~8월까지 8개월 동안 중국 스타트업의 총 투자 유치액은 22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투자 유치액보다 56%나 증가한 것으로, 중국 창업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Prequin, 2015. 10)

중국 창업 열풍의 중심지인 북경시 중관촌의 발전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젊은이들이 창업에 관심과 열정을 갖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뜨겁게 불고 있는 창업 붐은 창업 활성화의 핵심동력이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은 마윈과 마화팅, 레이쥔과 같은 창업 스타로, 이들은 방송을 비롯한 콘서트나 토론회를 통해 창업신화를 전파함으로써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북돋는다. 성공한 기업가는 청년들에게 전망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우리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찾기보다 창업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베이징시의 높은 주거비용과 생활비를 고려할 때 중국 청년들의 현실은 한국 청년 못지 않게 힘겹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컨대 북경시 대졸 초임이 57만 원(3,019위안) 정도인데,⁶ 북경 외곽지역 월세(1 bedroom)는 2015년 10월 기준 평균 3,425위안(65만 원)이나 된다.(Numbeo 홈페이지)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월급생활자들은 내 집 장만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3, 4명의 청년들이 작은 방에서 공동생활하며 매일 세 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지만, 그들은 베이징의 높은 생활비는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불평이 아닌 열정으로써 임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관촌 등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불과 5년 전 어느 열정적인 청년이 창업한 ‘좁쌀(小米, 샤오미)’이라는 이름의 작은 기업이 현재 글로벌 경쟁자의 반열에 올라선 것처럼, 최근 중국의 혁신기술 기업들은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무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창업스타가 키워낸 수많은 창업 키드들은 새로운 창업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성공한 창업기업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창업의 플랫폼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때 4년제 대졸자의 1/4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6

Peking University's Market and Media Research Centre, 2014; eChinacities.com]

있는 현실은 국가의 미래와 청년 자신들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 미래는 공룡 대기업의 시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혁신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과거에 경쟁력이라고는 ‘가격’밖에 없었던 중국이 최근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하게 된 상황을 점검해보면 그 동력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창업 붐이었다. 국내 청년들이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만을 고집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창업에 열정을 가질 때 우리 경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둘째, 창업 교육을 확대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고 창업 인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은 자녀가 창업하면 반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나 될 만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그러나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을 확대한다면 창업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고 막연한 두려움도 해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 교과목은 전공 선택이나 학부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학부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거나 경영학과 공학 계열에서 전공필수 과목으로 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창업 교육을 확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보다는 실습 중심의 교육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은 이론과 사례조사(case-study) 중심이며, 실습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수준이다. 북경 소재 대학들의 창업교육 과정은 작게나마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보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기업가를 양성하여 미래를 준비하려면 실습 중심의 창업 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창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집적된 효율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북경시 중관촌에는 풍부한 기술 인력·부품·제조 인프라·물류 시스템·금융 및 투자기관이 모여 있으며, 각각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연구기관, 대학, 소규모 창업기업, 인큐베이션 센터가 집적해 있다. 즉 인력 공급망과 기술개발 인프라가 결합되어 혁신기술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감세 등 창업기업 자체에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경쟁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창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창업 정책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창업자나 창업기업 그 자체만 지원하

는 것은 성공률도 낮고, 창업기업이 일정기간 이상 생존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창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창업기업 성공률과 생존율도 높아짐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넷째, 창업자금 조달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년창업지원정책 참여자 중 청년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창업 실패 후 재기의 어려움(25.6%)’을 꼽았다.(박천수 외, 2014) 이는 창업자금이 개인 신용대출이나 연대보증을 통한 은행대출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면 창업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신용불량자 처지가 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상 책임이 사업주 개인에게도 있으며 회사 보상과 사업주 개인의 보상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어 한 번 사업이 실패하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국의 경우 ‘창업자금=투자금’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다. 투자자금 조달방식의 변화를 위해 앞에서 제안한 것처럼 투자금융기관이 전문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키거나 중국의 심산판과 같이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투자금 조달경로를 조성·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W**

참고문헌

- 박천수 · 박동 · 김수진, 2014.6, 청년창업지원정책 참여자의 창업 인식, KRIVET Issue Brief, 54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호영, 2014. 4, 청년층의 취업관련 시험 준비 실태, KRIVET Issue Brief 49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 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 Beiji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Zhongguancun Innovation Development Institute, & Beijing Fangdi 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2015, Zhongguancun Index 2014
- Peking University's Market and Media Research Centre, 2014, Post Nineties Graduate Student Salary Report Preqin, 2015.10, Preqin Special Report: Asian Private Equity, data pack
- Zhang, L., Pollack, E., Boswell, M., & Rozelle, S, 2013, Are elite university graduates aiding China's transition to an innovation-based economy? Results from a career choices survey among would-be innovators in china and the USA, Asia-Pacific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0(1), 58-6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5, 하드웨어 창업, 중국 선전의 플랫폼을 활용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전무역관 방문 수집 자료
- 중관촌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zgc.gov.cn>
- 한지숙 기자, 2015.10.20, 中, 진짜 시장 '신삼판(新三板)' 뜬다... 기관투자자 중심 IPO 허브로, 헤럴드경제
- Baidu Encyclopedia(N.A.), the Recruitment Program of Global Experts
- eChinacities.com 홈페이지, 2014.8.5, Study Reveals Average Chinese Graduate Monthly Salary is 2443 RMD
- Invest in Haidian 홈페이지, 2011.5.25., 中关村“H6”新政
- Numbeo 홈페이지, 2015. 10 업데이트, Property Prices in Beijing, China